

순천만국가정원 '여름 물빛축제' 개막

내일부터 38일 간 개최...10시까지 야간 개장 나무·꽃·물·빛 함께 어우러지는 힐링축제



국가정원에서 별이 빛나는 밤을 맞아 보는 것도 올 여름 추천할만하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부지 112만㎡에 23개국 83개 정원이 꾸며져 있고 여름이 되면 수많은 나무들이 초록 그늘을 드리운다. 국가정원 랜드마크인 호수정원을 걸으면 여름의 정량 감도 느낄 수 있다.

정원에서는 여름 밤을 즐겁게 할 또 하나의 즐거움을 마련했다. 지난해 38만 명이 다녔던, 여름철 밤을 즐겁게 할 또 하나의 즐거움을 마련했다. 지난해 38만 명이 다녔던, 여름철 밤을 즐겁게 할 또 하나의 즐거움을 마련했다.

변질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품속으로 떠나고 싶은 여름철이다. 나무 그늘과 초목의 바람을 만끽하며, 물과 나무, 꽃이 어우러진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물과 빛을 활용한 아름다운 향연, 물빛 축제다.

순천시는 2019 물빛축제가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38일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물빛축제 기간동안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개장을 한다. 이번 물빛축제는 워터라이팅, 분수, 레이저, 음악 등이 어우러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여름밤을 시원하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기간 동안 워터라이팅쇼, DJ 치맥 페스티벌, 어린이물놀이장, 라이트가든 등이 운영된다. 워터라이팅쇼는 축제 기간 매일 오후 8시, 8시 30분, 9시 30분마다 호수에서 3차례 열린다.

음악과 국가정원의 경관이 어우러진 화려한 '워터라이팅쇼'는 최첨단 3D매핑,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쇼로 연출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분수 퍼포먼스와 음악이 조화된 불꽃놀이 가연출된다.

워터라이팅쇼와 함께 주목되는 프로그램은 'DJ 치맥 페스티벌'이다. 'DJ 치맥 페스티벌'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치맥 페스티벌은 전 연령층이 즐기는 물총대전, DJ EDM파티, 가요리믹스, 케이팝 커버댄스 구성돼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실내정원 옆

과 꿈틀정원 옆 등분, 서문 습지센터 1곳 등 3곳에 조성된다. 실내정원 옆에는 수영장과 에어볼장, 에어바운스가, 꿈틀정원 옆에는 워터드림, 티널분수, 워터버킷이 설치된다. 습지센터에는 바다분수, 티널분수, 에어바운스, 안개분수 등이 조성돼 정원에서 색다른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시는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안전한 물놀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라이트가든'은 물속가든, 벽스가든, 아트가든, 라이트댄싱가든, 이모션가든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물속을 산책하며 한여름밤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물속가든, 생태정원을 표방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상징적으로 연출한 벽스가든을 만날 수 있다. 빛과 아트의 콜라베이션으로 몬드리안 작품을 모티브로 디지털 라이팅을 연출한 아트가든 등 정원과 빛이 어우러져 꿈같은 여름밤을 안겨준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사계절 축제 등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며 자연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며 "시간과 계절, 날씨에 따라 특색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하반기 등하곶길 안전지킴이 100명 모집

여수시가 초등학생 등하곶길 안전지킴이 1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지킴이는 초등학생 안전지도, 스쿨존 과속차량 계도, 학교 주변 우범지역 모니터링 등을 한다. 근무 기간은 9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며,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한다. 수당은 한 달 평균 72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계시일 기준 만 41~64세 여주시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65%이하(4인 가구 기준 299만 원), 재산 2억 원 이하 등 소득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이전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평가해 8월 26일 선발자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지킴이 사업이 안전한 등하곶길 조성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별 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고흥군 드론 아카데미 교육 효과 '톡톡'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생 전원 시험 합격

고흥군이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드론 아카데미를 꾸준히 운영해 온 결과,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생을 다수 배출하는 등 그 효과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관내 일반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중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15명 전원이

실기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합격생 중에는 농사를 짓는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까지 다양한 층이 포합되어 있으며, 이들은 3주간 습득한 드론 비행기술을 농업 및 취업 등 각 분야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군민 60명의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생을 배출하였으며, 공공분야에서도

공무원 250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해왔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작년부터 2년 연속 고흥산업과학고 드론산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서 총 13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는 등 관내 드론 활용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고흥산업과학고 드론산업과가 서울 무역전시 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 '2019 고흥성공취업대박람회'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고흥=한윤섭 기자

광양시 신선농산물 수출량 해마다 증가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광양시 주요 수출 품목은 파프리카, 애호박, 토마토, 갯잎, 산초 등 채소류와 화훼작물인 알스트로메리아이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과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다.

지난 2017년 886t이던 수출물량이 지난해 927t으로 약 5%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약 1000t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보다 약 8%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물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많아 농산물의 맛과 품질이 우수한데

주요 원인이 있다.

또한 전남도와 광양시가 함께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비가 상승요인인 포장, 운반 등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수출농가에는 물류비의 15%를 수출업체에는 5%를 지원한다.

광양=김승호 기자

구례군, 멧돼지 포획틀 무료 대여 실시

구례군은 멧돼지 포획틀 대여사업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멧돼지 개체 수를 줄여 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며 지난 10일까지 포획틀 12대 설치가 완료되었다.

현재 각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무료로 대여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간은 2개월로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포획틀 대여는 유해야생 동물로 인

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 또는 마을이장이 해당 읍·면 사무소에 포획허가 신청과 대여 신청이 가능하며, 설치된 턱이 주기 활동이 멧돼지를 포획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전 작업이다.

군은 지난 16일 문척면에서 멧돼지 포획틀을 이용하여 멧돼지 2마리를 포획하였고 앞으로도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 솔바람 치유의 숲, 개장 전 최종 정비

곡성군에 위치한 '곡성 솔바람 치유의 숲'이 오는 9월 개장을 목표로 최종 정비 단계에 들어갔다.

곡성 솔바람 치유의 숲은 산림청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곡성군 동악산(735m) 자락의 신기리 청계동 계곡에 조성했다. 현재 기본적인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진입로 및 시설 등에 대한 최종 정비를 통해 올 9월 중 개장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대상지 선정과 진입로 사유지 정비를 도왔다.

여의도의 약 3분의 1 가량인 92ha의 면적에 달하는 솔바람 치유의 숲에는 울창한 소나무들이 백백

하게 들어서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또한 숲 내에 있는 청계동 계곡에는 동악산 북쪽으로부터 수많은 골짜기들이 합류해 풍부한 수량을 자랑한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제격이다. 역사적으로도 임진왜란 의병장이었던 청계 양대박 장군의 의병활동 본거지라는 유서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산림청은 이처럼 자연과 역사가 살아 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숲이 주는 이로운움을 느낄 수 있도록 솔바람 치유의 숲을 조성하게 됐다.

곡성=김광휘 기자



보성군, '청소년 진로토크콘서트' 성료

보성군청소년수련원은 지난 16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별꿈·달꿈 보성군 청소년 진로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진로 콘서트는 KBS 공채 MC 이정무 강사의 진로특강과 고등레퍼3 출연자 권영훈과 김민규(영계의)의 합창공연으로 꾸러졌으며, 관내 청소년들은 기말고사 기간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문화공연 관람으로 풀고 멘토와의 질의응답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토크콘서트에 참가한 학생은 "학업 부담감을 잠시나마 떨치고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어 행복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청소년수련원(원장 박영호)은 "하반기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체험, 진로특강, 진로박람회 등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